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엔티크 의자스타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ique Chair-Style in Korean Market

오혜경* / Oh, Hye-Kyung

문혜진** / Moon, Hye-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que chair style in Korean market. The examined objects were 232 chairs in selected 30 antique shops dealing with curios in Seoul from July 16 to August 23 in 2002.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

Antique chairs in Korean market are revival style and eclectic style. The revival style are copied or transformed period style antique chairs. The eclectic style are chairs newly designed by mixing of 2 or 3 different types period style antique chairs. Rococo-revival style were the most prevalent following Renaissance style chairs in the market. In case of chair back and legs the Classic revival style are made by copying and transforming the Klismos, Hepplewhite, Sheraton, which is a neo-classic style. The Gothic revival style are copied or transformed finial, foil, crocket and tracery which is the Gothic architectural decoration. In Renaissance revival style. Elizabeth, slat, caned, padded, yorkshire, bobbin turned, William & Mary are copied and transformed for the chair back. In Rococo-revival style, LouisXV, Queen Anne, Chippendale of Rococo-style chair back and cabriole legs are copied or transformed. In the eclectic style, Classic style chair back with Renaissance-style legs or Rococo style chair back with Renaissance style legs are combined as a periodical eclectic style. In this manner new style of chair back and the periodical style of legs were used together as a new eclectic style chair.

키워드 : 의자 스타일, 빅토리아 가구, 엔티크 의자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엔티크는 'Antiquity'¹⁾의 변형어로, '최소한 100년 이상 오래된 물건'을 뜻하며 오래 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한다. 오래되었다는 가치 외에 엔티크가 가지는 또 하나의 가치는 생활품으로서의 효용이다. 즉 엔티크는 문화재 또는 보물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생활품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그러나 1714년 영국 조지 안 시대에 최초로 엔티크 경매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물품은 책이었다.²⁾ 그러다가 미술품과 가구류가 포함되어졌고, 거의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종류도 점점 늘어 지금은 가구뿐만 아니라 도자기, 유리제품,

은제품, 보석, 시계, 카펫과 텍스타일, 고서, 갑옷과 무기, 장난감과 인형, 그 밖의 기념품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로 확산되어졌다. 이들 엔티크 제품 중 가장 널리 폭 넓게 판매되고 있는 물품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엔티크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³⁾

이러한 엔티크 제품이 최근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 이태원 등을 중심으로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에 하나 둘씩 엔티크 매장들이 늘어가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소수 매니아 층 사이에서 일부 소비되던 엔티크 제품이 점차 유행하며 실제로 집안을 엔티크로 꾸며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므로써 엔티크 제품, 그 중에서도 엔티크 가구의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엔티크 가구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여

* 정회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 정회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석사

1)antiquity : 낡음, 태고, 고대

2)김재규, 엔티크 문화예술기행, 한길사, 1998, pp.17~19.

3)상계서, p.64.

겨지며, 특히 가구 중에서도 의자는 공간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고, 또 실질적인 사용의 빈도도 높아 공간을 계획할 때 유도하는 분위기를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가구이다. 따라서 앤티크 가구에서도 의자는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앤티크 가구스타일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그 기초적 연구의 주제로 가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앤티크 의자의 스타일은 어떠한지, 그 중에서도 스타일을 결정짓는데 중심이 되는 의자 등받이와 다리의 스타일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앤티크 가구의 스타일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앤티크 샵들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장 실태 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1. 앤티크 샵의 공간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앤티크의 시발점이자 앤티크 샵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태원 앤티크 샵과 논현동의 가구거리, 압구정동과 청담동의 앤티크 샵 중 리프로덕션이나 소품 등을 판매하는 샵을 제외하고, 가구를 주로 판매하는 앤티크 샵 30곳을 선정하여, 2002년 7월16일부터~2002년 8월23일까지 샵들을 직접 방문해 앤티크 의자들을 관찰하고 그 특성들을 기입한 후 사진을 찍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집된 의자는 총 232개였다.

2.2. 수집된 자료의 판별과 분석

본 조사의 자료분석과 판별은 첫째, 관련 문헌⁴⁾을 참고하여 의자의 종류를 분류⁵⁾하였고 둘째, 시대별 가구 및 빅토리아 시대 가구에 관한 문헌과 사진⁶⁾을 정리하여 스타일을 분류⁷⁾하였다. 셋째, 이를 중심으로 앤티크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자를 조사하고 참고문헌의 사진과의 대조작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4)참고문헌 3,6,7,8,9,10

5)일반적인 의자는 형태적 분류, 용도적 분류, 구조적 분류, 재료별 분류, 가공 기법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앤티크 의자는 현대 의자의 재료와 구조가 개발, 적용되기 이전의 의자이므로 역사에 나타난 의자의 종류를 중심으로 스톨(stool), 벤치(bench), 사이드 체어(side chair), 암체어(arm chair), 베르제르(bergere), 윙 체어(wing chair), 러브 체어(love chair), 세틀(settle), 세티(settee), 카우치(couch), 소파(sofa)등으로 분류 하였다.

6)참고문헌 1~34

7)앤티크 가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빅토리아시대에는 과거의 양식들을 리바이벌하여 사용하거나 이들 양식들을 혼합 또는 새로운 스타일로 창작하여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리바이벌스타일로는 고전 리바이벌, 고딕 리바이벌, 르네상스 리바이벌, 로코코 리바이벌로 분류되어졌고, 한편 이들을 절충한 절충스타일도 상당 수 있었다.

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앤티크 의자를 스타일별로 분류하고 등받이 및 다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스타일을 파악하는데 있어 정리한 시대별 가구의 특징 및 관련 문헌의 사진을 이용하였지만, 이것만으로 규정이 어려운 것은 실내디자인사를 강의하는 교수 1인과 서양 앤티크 전문가 2인⁸⁾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앤티크는 원래 100년이상 오래된 물건이며 그 이하인 것을 준 앤티크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앤티크는 주로 준 앤티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진위여부는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의 스타일도 모방해 최근에 제작된 가구는 리프로덕션으로 분류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리프로덕션을 취급하는 샵을 제외시키고 진품을 취급한다고 하는 샵을 중심으로 조사⁹⁾함으로써 가능한한 앤티크가구를 선정하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하였다 해도 이에 대한 논의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가릴려면 기술적으로 매우 세밀히 진행되어야하는 난점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30개의 앤티크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자를 앤티크 또는 준 앤티크에 속한다고 보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앤티크 의자의 스타일은 참고문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리바이벌 스타일과 절충형 스타일로 나눌 수 있었다. 리바이벌 스타일의 의자는 주로 시대양식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변형하되 그 스타일이 시대양식에 속해있는 의자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절충형 스타일의 의자는 각 의자들을 분류하면서 시대별 가구의 특징 및 사진과의 대조작업을 해보았으나 리바이벌 스타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의자들을 절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한 의자에 2가지 이상의 시대양식이 절충된 스타일과 시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양식의 등받이와 시대양식의 다리가 절충된 스타일로 나눌 수 있었다.

3.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앤티크 의자의 스타일특성

3.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서울에 있는 30곳의 앤티크 샵에서 판매하는 232개의 의자의 종류 및 스타일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조사된 의자의 종류나 양식이 매우 다양하였고, 조사된 숫자도 다양하였다. 의자의 종류에서는 사이드 체어가 125개(53.9%)로 다른 의자에 비해 그 수가 월등히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암 체어, 소파가 많이 조사되었고, 스톨도 상당수 보여지고 있다. 가장 적었던 의자의 종류는 세틀, 벤치,

8)김재규, 『앤티크 문화예술 기행』의 저자

최지혜, 영국 소더비 석사 출신의 앤티크 컨설팅 전문가

9)전문가(최지혜, 김재규)의 도움을 받았음

세티였고, 왕체어는 한 예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의자의 스타일에서 보면 리바이벌 스타일이 절충형 스타일보다 월등 많았고, 그중 로코코리바이벌 의자의 수가 가장 많았다.

<표 1> 전체 사례 수

의자의 종류	리바이벌 스타일				절충스타일		전 체
	고전 리바이벌	고딕 리바이벌	르네상스 리바이벌	로코코 리바이벌	시대양식의 절충형	새로운양식의 절충형	
스툴			3	11			14
벤치			1	2			3
사이드 체어	12	4	40	46	12	11	125
암 체어	2		11	26		1	40
베르제르	2			7			9
왕체어							
러브 체어				3	1	1	5
세틀		2	1				3
세티	1						1
카우치			1	3		1	5
소파				23	1	3	27
합 계	17	6	57	121	14	17	232

3.2. 리바이벌 스타일

(1) 고전리바이벌

① 등받이의 특성

우리나라 앤틱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전리바이벌 의자의 등받이는 헤플화이트(Hepplewhite)류나 셰라톤(Sheraton)류의 신고전 스타일의 등받이가 많았고, 클리스모스(klismos)류의 등받이도 조사되었다. 먼저, 헤플화이트류의 등받이에서는 방패형, 하트형, 그리고 원형의 등받이들과 낙타등형 등이 사이드 체어와 암 체어를 통하여 골고루 조사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헤플화이트 의자의 고유한 등받이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은 것이 주로 판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셰라톤류의 등받이는 셰라톤 특유의 장방형이 주였는데, 사이드 체어에서 8개, 세틀에서 1개가 조사됨으로써, 셰라톤의 등받이가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그 형태는 세로대형(splat)이나 난간동자형(banister)이 주였다.

<표 2> 등받이로 살펴 본 고전 리바이벌 스타일

등받이 종류	사이드 체어	암 체어	베르제르	세틀	전체
클리스모스	1	1			2
헤플화이트	3	1			4
셰라톤	8			1	9
기 타			2		2
합 계	12	2	2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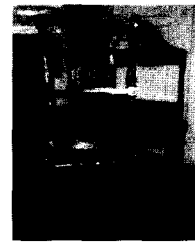
세로대형은 수금(lyre) 형태가 4개, 화병이 2개였고, 난간동자형은 막대가 3개있는 것과 4개있는 것이 각각 1개씩 있었는데, 이는 헤플화이트류 의자의 등받이가 원래의 형태에 준한 것에 비해 조금씩 변형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상부 가로대가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조사된 의자들의 상부 가로대는 <사진 1>와 같이 완만한 3각형의 페디먼트를 연상시키거나 곡선의 구불구불한 장식에 붙어있는 등 예외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절충적인 요소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 보다 빅토리아 시대를 대변한다고 본다면 조사된 셰라톤류 의자의 등받이는 이에 가깝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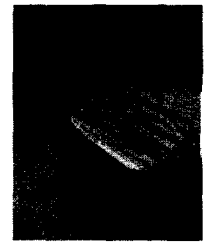
조사 결과 클리스모스 의자의 변형으로 보이는 등받이도 2개 있었지만 이것은 클리스모스 의자 등받이의 변형이라기보다는, 프랑스의 디렉트와르(Directoire) 양식을 표방한 레전시 시대의 것에 더 가까웠다. 따라서 조사된 자료 중에는 그리스나 로마의 양식 보다는 신고전 양식을 리바이벌한 의자가 대부분이었다.



① 세로대형형
출처 : 크로네



② 난간동자형형
출처 : 앤틱하우스



③ 클리스모스형
출처 : 제뉴인앤터크

<사진 1> 셰라톤류 의자

② 다리의 특성

앤틱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전리바이벌의자의 다리는 대부분 앞다리는 직선이고 뒷다리는 뒤로 약간 휘어져 있었고, 앞다리의 형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사각형이나 원통형의 다리가 주로 사용되었다.

사각형 다리는 스페이드(spade) 모양의 발로 끝이 처리되는 사각 스페이드(square tapered)로 전부 헤플화이트류의 등받이와 함께 사용하였고, 플루티드(fluted)되어진 원형 다리와 돌려깎기(turned)한 원형 다리는 셰라톤류의 등받이와 함께 사용되므로써, 예외 없이 통일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하나의 전형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조사대상의 제한점으로 인해 무리가 있을 것이지만, 많은 수가 그러한 전형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집한 자료 중 앞다리가 앞으로 휘어진 세이버(saber) 다리도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클리스모스 의자류의 등받이와 함께 사용되었다.

<표 3> 다리로 살펴본 고딤리바이벌 스타일

의자의 종류	사이드 체어	암 체어	베르제르	세틀	전 체
테이퍼드	3	2			5
플루티드	2		2	1	5
둘러깎기	6				6
세이버	1				1
합 계	12	2	2		17



출처: 철시



출처: 소피아

<사진 2> 고딤리바이벌 의자

(2) 고딤리바이벌

① 등받이의 특성

현재 우리나라 앤틱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딤리바이벌 의자에서 고딤적 요소는 주로 의자의 등받이에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 건축적 모티브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4> 등받이로 살펴 본 고딤리바이벌 스타일

의자의 종류	사이드 체어	세틀	전 체
포일+피니알	1	1	2
포일+피니알+크로켓	1		1
트레이서리	2	1	3
합 계	4	2	6

특히 건축의 석재장식, 즉 크로켓(crocket)¹⁰⁾, 피니알(finial)¹¹⁾, 트레이서리(tracery)¹²⁾ 및 포일(foil)¹³⁾ 등이 가구에 응용되었는데, 조사결과 사이드 체어를 보면 건축적 모티브에서 창 의 구성인 트레이서리를 등받이의 가로대에 사용한 것이 2개(단, 트레이서리를 구성하는 아치는 포인트드 아치(pointed arch)가 아닌 반원 아치였고, 한 개는 아치의 사이가 뚫린 오픈 등받이이었으나 나머지 한 개는 아치의 사이가 블라인드 아케이드(blind arcade)형식으로 막혀있었다.

트레이서리의 구성 중 포일을 삼각형 가로대의 중앙에 넣고 삼각변에는 크로켓을,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피니알을 배치시킨 것이 1개였고, 포일+피니알인 것이 1개였다. 세틀은 한 종류의 목재로 등받이가 높고, 옆면은 wing 체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한 개는 등받이의 가로대에 연속적 트레이서리 장식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없으면 고딤 양식이라 할 아무런 단서가 없었고, 다른 하나는 등받이에 포일장식이 그리고 옆면에는 피니알 장식이 되어있어 고딤으로 분류하였다.

10)크로켓(crocket) : 고딤 건축에서 첨탑(spire), 소첨탑(pinnacle), 박공(gable) 등의 경사진 옆면 가장자리에 사용된 꽃이나 줄기, 잎사귀 등의 동을새김 조각장식.
 11)피니알(finial) : 뿔족탑, 첨대 기둥, 가구의 모서리 등 수직적인 요소의 끝부분에 사용되는 손잡이형, 공형, 장식 향아리형, 불꽃형 등의 장식적 조각.
 12)트레이서리(tracery) : 고딤 건축의 창문에서 전체 첨두아치와 세부 첨두아치 사이의 공간을 장식하고 유리를 지탱하기 위해 고안된 살 장식.
 13)포일(foil) : 고딤 양식의 곡선적 창살을 구성하는 꽃잎 모양의 둥근 문양.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고딤리바이벌 의자의 등받이에 고딤적 모티브는 많은 양이 표현되지 않았고, 특히 트레이서리 장식의 등받이는 수직선을 강조하기보다는 수평선이 우세한 양상이어서 고딤적 분위기가 소극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도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된 양상이나 판매된 양상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므로 경향을 논할 수는 없다.

② 다리의 특성

우리나라 앤틱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딤리바이벌 의자의 다리는 사이드 체어에 있어서 말보로(marlborough) 다리¹⁴⁾와 베이스 터닝(Vase turning)다리의 두 종류가 판매되고 있었는데, 즉 포일+피니알(+크로켓)의 등받이에서 각각 말보로 다리와 베이스 터닝다리가 한 개씩, 그리고 트레이서리 등받이에서도 각각 말보로 다리와 베이스 터닝다리가 한 개씩 분포됨으로서, 두 종류의 다리가 쓰였다는 것과 등받이에 따라 다리의 형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경향을 언급하기에 조사된 의자의 수가 매우 적긴 하지만 역시 등받이의 디자인에 상관없이 다리는 자유롭게 채택되어지던 빅토리아 시대 의자의 다리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세틀은 등받이와 팔걸이에서부터 연결된 판넬이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표 5> 다리로 살펴 본 고딤리바이벌 스타일

의자의 종류	사이드 체어	세틀	전 체
말보로	2		2
베이스 터닝	2		2
패널		2	2
합 계	4	2	6

(3) 르네상스리바이벌

① 등받이의 특성

우리나라 앤틱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르네상스리바이벌 의자의 등받이중 사이드 체어를 보면, 엘리자베트(Elizabeth) 등받이가 13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 등받이는 우선 높이가 높았고 등받이의 가운데 세로대형부분이 천이나 가죽으로 씌어

14)말보로(marlborough)다리 : 조각이나 장식이 없는 사각형의 긴 나무토막과 유사한 다리.

졌고, 주위가 조각으로 둘러쳐지고 양옆은 턴드 기둥이나 트위스트(twist)한 기둥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기둥의 상부 끝에는 피니알이 달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피니알의 종류는 사각나무토막 위에 작은 구멍이 얹혀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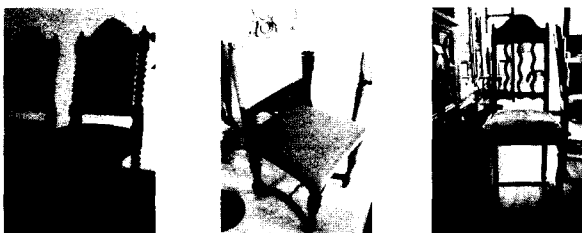
한편 피니알이 없는 것은 의자의 상부 가로대, 즉 가로대가 넓고 등받이가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이들 등받이가 원래 엘리자베스시대 의자의 등받이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참고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구별할 수는 없었다.

<표 6> 등받이로 살펴 본 르네상스 리바이벌 스타일

의자의 종류 등받이 종류	벤치	사이드 체어	암 체어	세티	카우치	진 체
엘리자베스		13	1			14
페디드		10	6		1	17
슬랫		6	1			7
윌리엄&메리		2	2			4
케인드		2	1	1		4
요크셔		1				1
보빈 턴드	1	1				2
기 타		5				5
합 계	1	40	11	1	1	54*

*조사된 의자는 총 57개였으나 등받이가 없는 스텐들이 3개 포함되어있어 등받이에는 54개만이 기재되었음

그 다음 많은 숫자가 조사된 페디드(padded) 등받이를 보면 이는 대부분 엘리자베스 등받이가 수직으로 높은 등받이였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평적이었고, 따라서 크롬웰(Cromwell)의 의자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등받이의 페디드된 부분이 넓은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였고, 3사례에서 가로대부분에 조각이 들어간 예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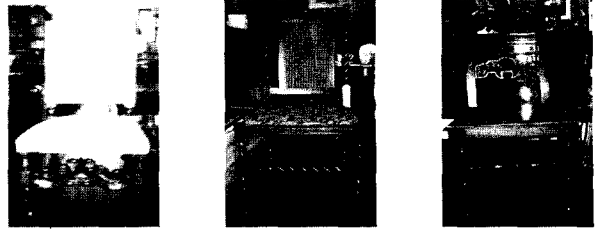


① 엘리자베스 등받이 출처: 킨
② 페디드된 등받이 출처: 바이올렛
③ 슬랫 등받이 출처: 루미너스

<사진 3> 르네상스 리바이벌 의자 등받이

다음, 6개가 조사된 슬랫(Slat) 등받이는 직선적인 형태가 4개였고, 나머지 2개는 슬랫이 직선이 아닌 구불구불한 형태로 변형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빅토리아 시대에 변형된 현상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윌리엄&메리(William & Mary) 등받이는 전형적인 무장식의 천 등받이였고, 케인드(Caned) 등받이는 찰스 2세(Charles II)의 전형적인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① 윌리엄&메리 등받이 출처: 크로네
② 케인드 등받이 출처: 오스카
③ 요크셔 등받이 출처: 앤티크 하우스

<사진 4> 르네상스 리바이벌 의자

한편 요크셔(Yorkshire) 등받이(1개)는 등받이 가로대 부분의 형태가 반원이 아닌 자유곡선의 조각이었고 보빈 턴드(Bobbin turned) 등받이도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사이드 체어에는 특히 어느 종류에도 속하지 않는 등받이가 5개 조사되었다. 이들 중 1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스가벨로를 연상시키는 의자<사진 5-②>였다.

이는 직립형의 매우 높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얇은 조각된 등받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스가벨로와는 달랐다. 기타에는 <사진 5-③>과 같은 의자도 4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전체가 목재로 되어있었고, 직립된 등받이와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다리로 되어있었으므로 르네상스로 분류하였다. 암 체어나 세틀, 카우치의 등받이도 사이드 체어의 등받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① 보빈 턴드 등받이 출처: 앤티크 하우스
② 기타 출처: 비발디
③ 기타 출처: 루미너스

<사진 5> 르네상스 리바이벌 의자 등받이

② 다리의 특성

현재 우리나라 앤티크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르네상스리바이벌 의자 57개의 다리를 조사해 본 결과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의자를 종류별로 보면, 우선 스텐들은 모두 블럭+볼터닝(block + ball turning)다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가장 종류가 다양한 사이드 체어는 블럭+볼터닝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베이스 터닝(vase turning)이 9개, 그리고 트위스트 터닝(twist turning)이 그 다음 순이었다.

<표 7> 다리로 살펴 본 르네상스 리바이벌 스타일

의자의 종류	스틀	벤치	사이드 체어	암 체어	세틀	카우치	전 체
불터닝			2	1			3
블럭+불터닝	3		10	3		1	17
트위스트 터닝			6	1			7
블록 +트위스트 터닝			2	2			4
베이스 터닝			9	2			11
블록 + 베이스 터닝			3				3
베이스+불터닝			1				1
트럼펫 터닝			4				4
컴 앤 커버			3	1			4
기 타		1		1	1		3
합 계	3	1	40	11	1	1	57

암 체어는 블럭+불, 블럭+트위스트, 베이스 터닝등의 다리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사이드 체어나 암 체어에서 다리의 종류를 복합한 베이스+불터닝나 블럭+트위스트 터닝등의 다리가 쓰인 예가 나타났다는 것이며 이는 빅토리아시대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르네상스리바이벌 의자의 다리에는 블럭+불터닝, 베이스 터닝, 트위스트 터닝의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다.

(4) 로코코리바이벌

① 등받이의 특성

로코코리바이벌에서 사용된 등받이는 크게 영국의 퀸앤(Queen Anne) 스타일과 루이 15세(Louis XV) 스타일, 치펜데일(Chippendale) 스타일, 그리고 벌룬(Balloon) 스타일로 나눌 수 있었다.

<표 8> 등받이로 살펴 본 로코코리바이벌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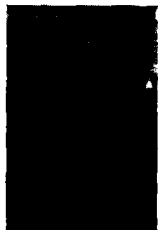
의자의 종류	사이드 체어	암 체어	러브 체어	카우치	소파	전 체
루이 15세	18	21	3	3	18	63
치펜데일	13	3			4	20
퀸 앤	3	2			1	6
벌룬	12					12
합계	46	26	3	3	23	101

*등받이가 없는 스툴, 벤치와 등받이가 팔걸이와 붙어있어 등받이 스타일을 알 수 없는 베르제르는 제외됨.

먼저, 사이드 체어를 보면, 루이 15세 스타일의 등받이는 총 18개로 사각형과 원형(圓形)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사각형이 8개로 원형 10개보다 적었다.



1: 루이 15세 사각형등받이변형 출처: 소피아



2: 루이 15세 사각형등받이변형 출처: 소피아



3: 루이 15세 원형등받이변형 출처: 스킨렛

<사진 6> 루이 15세 스타일의 등받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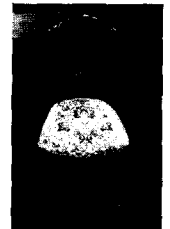
사각형 등받이를 다시 원형(原型)과 변형으로 나누어 조사해 본 결과 원형(原型)이 4개, 변형이 4개로 같은 비율이었다. 사각형 등받이의 변형은 먼저 <사진 6-①>과 같이 사각형 등받이의 천부분을 오픈 시키고 가운데 부분을 치펜데일식으로 장식한 경우가 2개, <사진 6-②>와 같이 사각형의 윗부분을 약간 부풀려 변형이 된 경우 2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①치펜데일등받이의 변형 출처: 알렉산드라



②퀸앤 등받이의 변형 출처: 소피아



③벌룬스타일등받이 출처: 제유인

<사진 7> 로코코 리바이벌 의자의 등받이

루이 15세 스타일의 등받이 중 원형(圓形) 등받이는 10개로 이중 루이 15세 스타일의 등받이와 유사한 원형(原型)이 4개, 변형이 6개로 조사되었다. 변형은 다양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원형 프레임안의 천부분이 제거되거나 그 안을 장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등받이의 형태를 원형에서 약간 일그러뜨리거나 주위에 곡선 프레임 장식을 한 경우<사진 6-③>였다.

치펜데일 스타일의 등받이를 가지고 있는 사이드 체어는 총 13개로 전형적인 치펜데일 스타일의 등받이는 소수(3개)였고, 모두 약간씩 변형(10개) 되어 있었다. 그 변형의 양상을 보면 먼저, 원래 치펜데일 의자에는 등받이 부분의 좌석 쪽에 가로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조사된 변형 등받이의 의자에는 모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등받이의 형태도 약간씩 변형되어 있었다<사진 7-①>.

퀸앤 스타일의 등받이는 3개가 나타났는데 그 중 1개는 퀸앤 스타일의 전형적인 형태였고, 나머지 2개는 변형된 형태를 하고 있었다. 변형된 형태를 보면 2가지 스타일로 퀸앤 스타일의 세로대형에 둥근 양귀가 달린 등받이를 한 것과 <사진 7-②> 세로대형이 직선으로 변형되어 몇 갈래로 나뉜 등받이로 나눌 수 있었다.

둥근 벌룬 스타일의 의자는 원래 로코코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빅토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로코코리바이벌의 특징적 형태이다.

로코코리바이벌 의자 중 암 체어의 등받이는 사이드 체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암 체어에는 벌룬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사이드 체어에서 루이 15세 스타일과 치펜데일 스타일의 차이가 대단히 크지 않았던 것에 비해 암 체어에서는 루이 15세 스타일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달랐다. 또한 사이드 체어에서 전형적인 스타일과 변형적인 스타일의 수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 비해 암 체어에서는 전형이 훨씬 많고 변형이 소수였다.

로코코리바이벌에서는 다른 스타일에서는 없던 소파가 23개 나타났는데 대부분 루이 15세 스타일의 등받이였고, 치펜데일 스타일이 4개, 퀴엔 스타일이 1개였다. 루이 15세 스타일의 소파 등받이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루이 15세 스타일 의자의 등받이를 그대로 옆으로 길게 늘인 것 같은 형태(11개)였고, 그 다음이 로코코의 자유곡선을 대담하게 표현(5개)하거나 베르제르 등의 의자 등받이를 2~3개 옆으로 붙여 놓은 것(7개) 등이었다. 이들 의자들은 화려하고 기묘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택에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판매자들의 평가였다. 3개가 조사된 카우치는 한쪽에 베르제르의 높은 등받이와 팔걸이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었고, 높이는 러브 체어에 비해 낮았다. 한편 러브 체어는 두 사람이 옆으로 나란히 앉는 의자와 마주보고 앉는 의자가 있었다. 마주보고 앉는 의자는 베르제르의 등받이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양 끝모서리에 각각 위치해 있었다. 이들 러브 체어는 좌석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러브 체어에서 테드 어 테드(Tete a Tete)는 발견되지 않았다.

② 다리의 특성

로코코 스타일의 의자는 일반적으로 캐브리올(cabriole) 다리가 대표적인 특징이다.

<표 9> 다리로 살펴 본 로코코리바이벌 스타일

의자의 종류 다리의 종류	스툴	벤치	사이드 체어	암 체어	베르제르	러브 체어	카우치	소파	전 체
퀴엔	3	1	3	1		1		6	15
루이15세	4	1	41	25	7	2	3	17	100
루이15세 + 바퀴			2						2
기타	4								4
합계	11	12	46	26	7	3	3	23	121

현재 우리나라 앤틱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코코 리바이벌 의자 121개의 다리를 조사한 결과만 보아도 대부분이 캐브리올 다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의자의 다리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분류해보면 첫째로, 퀴엔 스타일의 조금 두꺼운 캐브리올 다리를 사용한 경우와 둘째, 루이 15세 스타일의 휘어지거나 가늘어지는 캐브리올 다리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 15세 스타일의 캐브리올 다리를 변형한 짧은 다리에 바퀴가 달린 형태의 다리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

먼저, 퀴엔 스타일의 조금 두꺼운 캐브리올 다리를 사용한 의자는 소파에서 6개, 스툴과 사이드 체어에서 각각 3개씩 조사되었고, 루이 15세 스타일의 캐브리올 다리를 사용한 의자는 사이드 체어가 단연 4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암 체어로

25개, 소파가 17개가 조사되는 등 로코코리바이벌 의자는 캐브리올 다리 중에서도 루이 15세 스타일의 휘어지고, 가는 캐브리올 다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퀴가 달린 짧은 루이 15세 스타일의 캐브리올 다리는 사이드 체어에서 2개가 조사되었다. 기타로는 스툴에서 S 스크롤(S scroll)을 다리에 사용한 경우가 4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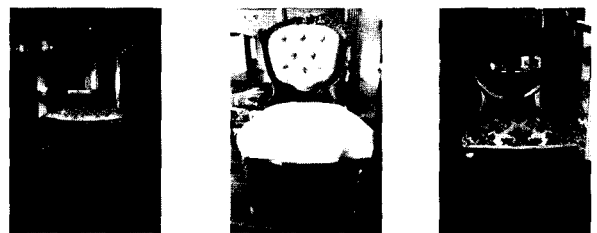
3.3. 절충형 스타일

현재 우리나라 앤틱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자들을 분류한 결과, 고전리바이벌, 고딕리바이벌, 르네상스리바이벌, 로코코리바이벌에 속하지 않는 의자들도 있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빅토리아 시대 의자가 대체적으로 과거 양식에서 따온 리바이벌 스타일의 의자가 많긴 하지만, 전혀 다른 요소를 절충시켜 새로운 스타일의 의자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의자는 한 의자에 2가지 이상의 시대양식이 혼합된 경우와 시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양식과 시대양식이 혼합된 경우이다.

(1) 시대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

조사결과 시대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은 사이드 체어에서 고전양식의 등받이+르네상스양식의 다리, 고전양식의 등받이+로코코양식의 다리, 로코코양식의 등받이 + 르네상스 양식의 다리의 3 종류가 나타났다. 이중 고전+로코코는 1개의 예 뿐이었고, 나머지는 각각 5개씩이었는데, 결국 시대양식의 절충형 스타일은 르네상스양식의 다리에 등받이가 고전양식인가, 로코코양식인가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고전양식의 등받이에 르네상스양식의 다리에서 고전양식의 등받이는 <사진 8-①>과 같이 웨라톤의 변형 등받이가 나타났고, 다리는 엘리자베스의 컴 앤 커버 다리였다. 로코코양식의 등받이에 르네상스양식의 다리는 퀴엔의 등받이나 루이 15세의 등받이에 전반 가공한 다리가 주로 쓰였고, 한 개가 조사된 고전양식의 등받이+로코코양식의 다리는 헤플화이트의 등받이에 캐브리올 다리가 사용되었다. 한편 러브 체어와 소파에는 로코코양식의 등받이+르네상스양식의 다리가 사용되어졌는데, 이들은 모두 루이 15세 등받이에 전반 가공한 다리였다.



①고전양식의 변형 등받이 + 르네상스 다리 출처: 바버리아
②로코코 스타일 등받이 + 고전양식의 다리 출처: 콜로네
③고전양식의 등받이 + 로코코의 다리 출처: 쾰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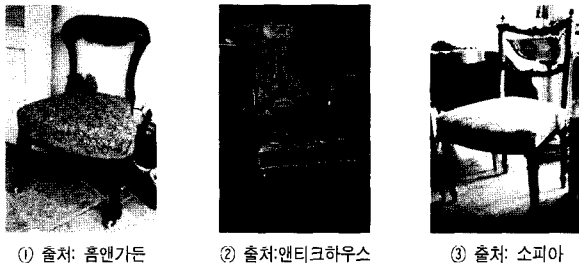
<사진 8> 시대양식의 절충형 스타일 등받이와 다리

(2) 새로운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

조사결과 새로운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은 사이드 체어에서 새로운 양식의 등받이에 고전 양식의 다리나 르네상스양식의 다리, 또는 로코코양식의 다리가 주로 쓰였고, 이중 르네상스양식의 다리가 가장 많이 쓰였다.

먼저, 등받이를 보면 <사진 9>와 같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스타일이 쓰였는데, 그 중 <사진 9-③>과 같이 철재의 사용으로 그 비례가 가늘어지면서 단순한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원래의 시대적인 형태에서 변형이 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스타일이 있었다.

<사진 9-①>의 등받이는 로코코, 즉 별문 등받이의 변형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 변화된 폭이 커서 새로운 스타일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사진 9-②>의 등받이도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이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등받이가 대폭 변형되거나, 새로운 재료의 출현으로 형태나 비례가 달라지는 등 빅토리아시대에는 새로운 스타일의 등받이가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진 9> 새로운 양식의 절충형스타일 등받이와 다리

한편 암 체어도 하나 조사되었는데 이 등받이 또한 새로운 스타일이라 여겨지며, 카우치, 소파의 등받이도 새로운 스타일이였다.

새로운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에서 등받이와는 달리 다리는 시대양식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다리가 르네상스 다리로서 시대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선반 가공한 다리였고, 고전 스타일이나 로코코의 캐브리올 다리도 있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첨부할 사항은 러브 체어에서 다리가 없는 스타일이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서 소파 종류는 다리가 길던 짧은 간에 모두 존재하고 있었는데, 조사한 러브 체어는 전체가 천으로 싸인 업홀스트리(upholstery chair)였고 다리가 없었다. 빅토리아시대에 새로운 가구에 대한 시도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면 다리가 없는 가구 스타일 또한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였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10> 등받이와 다리로 살펴 본 절충형 스타일

절충형 스타일 (등받이 + 다리)	의자의 종류						
	사이드 체어	암 체어	러브 체어	카우치	소파	전 체	
시대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	고전 + 르네상스	5				5	
	고전 + 로코코	1				1	
	로코코 + 르네상스	5		1	2	8	
새로운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 + 고전	3				3	
	새로운 스타일 + 르네상스	7	1		1	11	
	새로운 스타일 + 로코코	2				2	
	로코코 + 새로운 스타일			1		1	
합 계		23	1	2	1	4	31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빅토리아시대 앤틱 가구스타일에 대한 사례조사로 서울에 소재한 앤틱 샵 30곳을 선정하여 2002년 7월16일부터 ~2002년 8월23일까지 샵들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표에 조사내용을 기입한 후 사진을 찍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 232개를 분석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앤틱 의자의 종류는, 사이드 체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암 체어, 소파, 스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앤틱 의자의 양식별 스타일은, 로코코리바이벌 스타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르네상스리바이벌이었다.

이를 등받이와 다리의 양식별로 보면

1) 고전리바이벌은 대부분 신고전 양식을 리바이벌한 것으로, 등받이는 헤플화이트류, 쉐라톤류, 클리스모스류에 의거하였다. 다리는 테이퍼드, 플루티드, 돌려깎기, 세이버다리가 많이 사용되었다.

2) 고딕리바이벌은 등받이에서 고딕의 건축적 장식 모티프, 포일+피니알, 포일+피니알+크로켓, 트레이서리 등이 나타났다. 다리는 말보로, 베이스 터닝, 페널이 주였다.

3) 르네상스리바이벌은 영국의 엘리자베스와 자코비안 시대를 망라한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났는데, 등받이는 엘리자베스, 슬랫, 케인드, 페디드, 요크셔, 보빈 돌려깎기, 윌리엄&메리 등이 주로 쓰였다. 다리는 다양한 선반가공의 기법인 블럭+볼, 베이스, 트위스트, 트럼펫, 컵 앤 커버 등이 사용되었다.

4) 로코코리바이벌은 루이 15세, 퀴엔, 치펜데일의 로코코 스타일 등받이가 원형 또는 크게 변형되어서 사용되어졌고, 다리는 캐브리올 다리가 가늘게, 또는 굵게 적용되고 있었다.

5) 절충형 스타일은 등받이와 다리가 서로 다른 시대 양식으로 조합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등받이에 시대적 양식의 다리가 조합되었는데, 시대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에는 고전양식의 등받이+르네상스양식의 다리, 로코코양식의 등받이+르네상스양식

의 다리가 있었고, 새로운 양식의 절충형 스타일에는 새로운 등받이에 고전양식의 다리, 르네상스양식의 다리, 로코코양식의 다리가 각각 조합되었다.

이들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서 얻은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빅토리아시대의 앤티크 의자는 복제, 변형, 절충의 3가지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역사적으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복제된 전형적인 의자가 상당 수 조사되므로 빅토리아시대에는 지나간 시대 가구의 복제품이 많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또한 이들 의자는 숫자적으로 많아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스타일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둘째, 각 시대의 대표적 의자의 원형에서 약간씩 또는 많은 부분 변형된 의자도 상당 수 보이고 있었는데, 그 변형된 양상은 대체적으로 참고문헌에서 그 유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매우 적극적인 또는 획기적인 변형 의자도 포함되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판매되는 앤티크 의자는 원형 변형을 불문하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시대를 달리한 등받이나 다리, 또는 새로운 양식의 등받이나 다리가 절충된 스타일이 다수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움을 추구하던 빅토리아시대 사람들의 시도와 그에 대한 호응에서 그 시대에 이미 상당 수 제작되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1. 김재규, 앤티크 문화예술 기행, 한길사, 1998
2. 김정근·홍형욱 공저, 서양의 주택과 실내의 양식, 경춘사, 2002
3. 민찬홍·박영순·오혜경·천진희 공저, 실내디자인 용어사전, 디자인하우스, 1997
4. 배만실, 장식미술사, 기문당, 1994
5.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오혜경 역, 실내장식의 변천사, 도서출판 국제, 1992
6. 이강훈, 재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고찰한 현대의자디자인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0
7. 정복상, 김상권 공저, 가구디자인, 미진사, 1996
8. 이연숙, 서양의 실내공간과 가구의 역사, 경춘사, 1992
9. 이연숙, 실내디자인 양식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10. 조정숙, 조정민 편, 가구의 역사, 기문당, 1992
11. Mario Dal Fabbro, 천진희 역, 의자디자인과 구조, 도서출판 국제, 1992
12. JOHN. F. PILE, 홍승기 역, 실내디자인사, 도서출판 서우, 2002
13. Alan & Ann Gore, the history of English inter-iors, Phaidon, 1991
14. Clifton-Mogg.C, The Neoclassical Source Books, New York, 1991
15. David Crowley, Victorian Style, BDD Promotional Book, 1990
16. David Linley, Extraordinary Furniture, Harry N. Abrams Inc, 1985
17. David P.Lindquist외, Victorian Furniture, krause publications, 1995
18. Ellen M. Plante, The Victorian Home, Michael Friedman Group Inc, 1995
19. Francis Rousseau, The Book of Antique Furniture, Chartwell books Inc, 2000
20. Harold H. Hart, Chairs Through The Ages, by Hart Publishing Co, New York, 1997
21. Kathleen Mahoney, Gothic Style, Harry N. Abrams Inc, 1995
22. John Morley, The History of Furniture, A Bulfinch Press Book, 1999

23. Joseph Aronson, The Encyclopedia of Furniture Third Revised Edition. Crown Publishers Inc, 1993
24. Judith & Martin Miler, Victorian Style, Mitchell Beazley, 1994
25. Linley. D, Classical Furniture, New York : Abrams Inc, 1993
26. Mary Gillatt, Period Style, Little Brown and company, 1990
27. Randolph Delehanty, In the Victorian Style, Chronicle Books, 1991
28. Richard Davidson, Furniture Antique Checklist, Sherrill Whiton, 1991
29. Robert and Harriet Swedberg, Victorian Furniture style and prices. Book I Revised, 1976
30. R. W. Symonds 외, Victorian furniture, Studio Editions London, 1987
31. Sherrill Whiton, Interior Design & Decoration, J. B. Lippincott Company, 1974
32. Sherrill Whiton, Stanley Abercrombif, Interior Design & Decorator, Prentice Hall, 2002
33. Scott. K, The Rococo Interior, N. H & London : Yale University, 1995
34. Sir Francis Watson, The History of Furniture, Crown Publishers Inc, 1976

<접수 : 2003. 10. 31>